정답과 해설

원서 해부 노트 정답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 Part 4 파이널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배점: 4·6·9·11·12·13번 각 6.0점, 나머지 10문항 각 5.4점(합 90점) / 서답형 10점(부분 점수 없음)

번호	정답	해설
1	②	모든 것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으므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스토아의 가르침. ①은 글이 부정한 태도, ③은 '유일한 길'로 과장, ④는 '더 겸손해진다'를 뒤집은 오답.
2	①	정원 비유 → 살아 있는 존재 비유. ④는 울타리(논리학)와 영혼(윤리학)을 뒤섞은 오답.
3	①	'최고' = 덕, 곧 생각 · 행동 · 선택의 탁월함. ④는 '운이 허락하면 좋은 것'을 '늘 피할 것'으로 과장.
4	②	군대를 지휘한 마리우스도 실은 권력욕에 지배당했다는 뜻. ①은 표면 의미(지휘)만 본 오답, ④는 야망의 주체를 병사로 바꾼 오답.
5	②	두 귀 사이의 공간 = 자기 마음. ③은 '귀'라는 표면 단어로 유도한 오답.
6	⑤	①~④는 Posidonius(② his visitor의 his 포함), ⑤는 the general = Pompey.
7	③	① 18세 또는 20세, ② 노년의 파나이티오스, ④ 아테네 이후 먼 곳에서 공부, ⑤ 북아프리카 포함.
8	④	분노(스토아의 끊임없는 적)와 슬픔 · 의무에 관해서도 썼다. 나머지는 모두 일치.
9	⑤	expanded의 목적어이자 understood의 목적어가 빈 명사절 → what. ① 분사구문 ② 과거분사 후치 수식 ③ 단수 주어 + was ④ 계속적 용법 which.
10	③	(A) 그가 '확신한' 상태 → convinced(convince는 목적어가 필요) (B) spend + 시간 + -ing의 수동 → writing (C) 선행사 elites(사람) → who.
11	⑤	자기 정복은 어렵지만 해낸다면 빛나는 글이나 화려한 승리보다 훨씬 '더(more)' 인상적인 것을 만든다. less면 Yet의 대비와 모순. ③ radical은 오랜 전통에서 벗어났다는 맥락에 맞음.
12	①	'밀치지 않기'를 넘어 모두가 말 그대로 같은 팀 — 한 몸의 손가락 · 간 · 피부 세포. ③은 '누구도 완전히 자족적이지 않다'와 모순, ②·④는 '밀치지 않기'보다 후퇴한 내용.
13	③	불멸을 믿던 87 BC의 마리우스 뒤, 'Such was the broken man' 앞. Now, however가 과거의 자신감과 지금의 망상을 대비한다.
14	④	거품을 거부하고 정치 · 군사로 지성을 넓힌 포시도니오스의 이야기에 로마의 도로와 상업이 끼어듦.
15	④	주어진 문장 → (C) for example 아테니온 → (A) In another account 다모필로스 → (B) 비슷한 응보(아피키우스) · 모든 사례의 공통점 = 성격의 결함.
16	①	영향력은 수세기 동안 지속(lasted) — 수세기 뒤 아우구스티누스의 응답 / 천재도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임(accepted) — 반박하지 않고 평화롭게 죽음. ④ faded는 '오랫동안 거인'과 모순.
서답형	POLYMATH	(1) P 135 BC (2) O Rhodes (3) L Panaetius (4) Y Marius (5) M False (6) A Cicero (7) T fifty-two (8) H the soul → P-O-L-Y-M-A-T-H. 완성 단어 polymath(박식가)는 포시도니오스를 가리키는 말 — 자기 검증 장치. 함정: (1) B. 51 BC, (2) C. Athens · K. Apamea, (6) I. Pompey, (7) J. eighty-four · V. twenty-seven · Z. seven, (8) F. the bones and sinews(논리학) · N. blood and flesh(물리학).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는 불안한 풍요의 시대에 명문가에서 태어난 또 한 명의 스토아였다. (과거분사 후치 수식 born / yet another)
→ **He was yet another Stoic born into a prominent family in a time of anxious abundance.**

02 우리가 정말로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이다. (the only thing (that) S V + 단수 동사)
→ **The only thing we can really manage is ourselves.**

03 로마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철학자에게 교육받게 하기 시작했다. (사역 have + O + p.p.)
→ **Roman fathers had begun to have their children educated by philosophers.**

04 경험할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겸손해진다. (the + 비교급, the + 비교급 / humbled)
→ **The more you experience, the more you learn, and the more humbled you are.**

05 그의 재능을 가로막은 유일한 제약은 조잡한 측정 도구였다. (주어 constraint(단수) + was / crude)
→ **The only constraint on his brilliance was the crude measuring tools of his age.**

06 그 교본은 너무 상세해서 장군이 아닌 사람에게는 너무 어렵다고 여겨졌다. (so ~ that / too ~ for anyone but)
→ **The manual was so detailed that it was considered too advanced for anyone but a general.**

07 그를 임종 자리로 이끈 것은 아마 그의 호기심이었을 것이다. (It was ~ that 강조 / likely)
→ **It was likely his curiosity that brought him to the deathbed.**

08 이 모든 사례를 하나로 묶은 것은 성격의 결함이었다. (what절 주어 + was / link together)
→ **What linked all these cases together was a deficiency of character.**

09 폼페이우스는 포시도니오스에게 자신을 위한 조언이 있는지 물었다. (ask + O + if절 / advice)
→ **Pompey asked Posidonius if he had any advice for him.**

10 폼페이우스는 군기를 낮춘 채 철학자의 문 앞에서 절했다. (with + O + p.p. / standards)
→ **Pompey bowed with his army standards lowered at the philosopher's door.**

11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쪽에 자신을 내맡기느냐이다. (what절 주어 + 간접의문문 보어 / turn oneself over to)
→ **What matters in life is which side we choose to turn ourselves over to.**

12 우리 각자는 이 큰 몸에서 하나의 역할을 받았다. (each of us + 단수 동사 / 현재완료 수동)
→ **Each of us has been given a role in this large body.**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포시도니오스의 출생·사망 연도 / 출신	**기원전 135년 / 기원전 51년 · 시리아 아파메아(Apamea)**
태어난 시대를 부른 말 / 그 시대의 역할	**불안한 풍요(anxious abundance) / 제논 · 클레안테스를 만든 것과 같은 불확실성 속의 형성기**

항목	답
어린 시절의 이른 교훈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자신뿐 — 두 귀 사이의 공간만이 확실히 정복할 수 있는 영토
시리아의 풍요에 대한 회고 / 참주들을 묘사한 말	끝없는 잔치 · 목욕탕이 된 체육관 / "술 취한 야망"
고향을 떠난 나이 / 아테네 도착 시기 / 당시 수장	18세 또는 20세 / 기원전 117~115년 사이 / 노년의 파나이티오스
파나이티오스가 한 세대 전 로마에서 가르친 사람	루틸리우스(루푸스)
포시도니오스가 공부한 먼 곳	이탈리아 · 시칠리아 · 그리스 · 달마티아 · 북아프리카 · 근동
그의 평판 / 조수를 잰 곳 / 켈트족을 조사한 곳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최고의 박식가 / 스페인 / 갈리아
잰 것 · 만든 것 / 유일한 제약	지구 둘레 · 해와 달의 크기와 거리 / 지구본 · 태양계 모형 / 조잡한 측정 도구
세네카가 묘사한 그의 삶	온 세상이 신들의 신전인 것처럼 살았다
외면을 권한 학파 / 영향을 준 스토아 둘	에피쿠로스학파 / 디오게네스 · 파나이티오스
마리우스의 군단을 훈련한 사람 / 포시도니오스가 쓴 교본	루틸리우스 루푸스 / 전술 교본(일종의 『손자병법』) — 장군 아니면 감당 못 함
로도스에서 오른 최고 공직 / 한 일	프리타니(prytany) / 통치 평의회 주재 + 철학 학교 육성
로마에 간 해·이유 / 마리우스의 7번째 집정관 선출	기원전 86년, 사절(정치적 임무) / 기원전 87년 말
마리우스의 죽음과 대비된 철학자	안티파트로스 — 삶이라는 항해의 축복을 세며 평화롭게 떠남
야망의 사례 세 사람 / 공통점	아테니온 · 다모필로스 · 아피키우스 / 성격의 결함(a deficiency of character)
세 가지 교훈 / 세네카가 전한 판정	야망을 경계하라 · 군중을 피하라 · 사치는 권력만큼 썩게 한다 / "마리우스는 군대를 지휘했으나 야망이 마리우스를 지휘했다"
아테네를 떠난 때 / 사람들을 부른 말	기원전 109년 파나이티오스 사후 / "생각 없는 군중(ochloi anoetoi)"
키케로가 온 해 · 나이 / 스승을 부른 말	기원전 79년 · 27세 / "우리 포시도니오스"
폼페이우스의 두 방문 / 첫 방문의 조언	기원전 66년(해적 원정 전) · 기원전 62년(전쟁 승리 뒤, 군기를 낮추고 절) / "최고가 되어 늘 남보다 뛰어나라"(호메로스 인용)
생명체 비유 / 역사서 권수와 범위 / 사망 나이	피와 살(물리학) · 뼈와 힘줄(논리학) · 영혼(윤리학) / 52권 · 기원전 146~86년 / 84세

4-3. 통합 사고 문제 — 9장과 10장을 잇는 자리

문제

9장에서 루틸리우스가 마리우스와 맞서다 누명을 쓰고 추방되었지만 원망 없이 일을 계속하며 자신이 통제하는 것은 자기 성품뿐임을 알았던 일(72쪽 ¶3~¶5, 73쪽 ¶4 · ¶6, 74쪽 ¶4)과, 10장에서 일곱 번이나 집정관이 된 마리우스가 망상 속에 죽는 것을 포시도니오스가 지켜보고 '야망이 마리우스를 지휘했다'고 판정한 일(78쪽 ¶1~¶2, ¶6~¶7)을 비교하여, 두 장이 성공과 권력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9장 또는 10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더 중요한 것: Both chapters show that a person's _____ matters more than success or power.

더 중요한 것: character (9장 74쪽 ¶4 · 10장 78쪽 ¶6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
근거 1 (예시): Rutilius was exiled on false charges that Marius pushed behind the scenes, but he was not bitter and kept working, because he knew that all he controlled was his character.
근거 2 (예시): Marius won seven consulships, yet he died delusional and tortured by dark dreams, and Posidonius saw in such men a deficiency of character: ambition commanded Marius.
채점: 단어(character) + 두 인물의 일화를 각각 근거로 들 것 + 9·10장 어휘(false charges, exile, bitter, consulship, delusional, a deficiency of character, ambition 등) 포함. 마리우스가 두 장에 모두 나오는 같은 인물이고, 루틸리우스가 마리우스를 위해 군단을 훈련한 포시도니오스의 동료 스토아(77쪽 ¶4)라는 연결을 짚으면 가산.